

누가 정치를 해야 하나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 독일의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 세 가지를 정치인의 가장 필요한 요소로 언급한 것은 97년 전(1919년)입니다. 당시 암울한 독일 정치에 적극 참여하려는 학생운동 단체를 상대로 한 뮌헨 대학 연설에서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해 말에 유명한 ‘소명(召命)으로서의 정치’로 발간됐습니다.

5월 30일부터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투표를 했거나 안 했거나,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정치를 혐오하거나 상관없이 유권자들은 20대 국회의 정치가 지난 국회보다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요즘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낮지요. 그럼에도 나라의 미래에, 개개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정치를 소홀히 다루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줄이고, 유한한 권력과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모든 사람을, 아니 절반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최선 또는 차선의 선택이란 것은 교과서 예나 나오는 얘기고, 아마도 정치가 최악을 피하고 차악 정도만 달성해도 평균점수는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정치를 해야 하나.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 독일의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 세 가지를 정치인의 가장 필요한 요소로 언급한 것은 97년 전(1919년)입니다. 당시 암울한 독일 정치에 적극 참여하려는 학생운동 단체를 상대로 한 뮌헨 대학 연설에서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해 말에 유명한 ‘소명(召命)으로서의 정치’로 발간됐습니다. 권력을 다루는 정치인의 역할과 자질을 꿰뚫는 베버의 ‘통찰력’은 지금 읽어 봐도 너무나 적확합니다.

일단 정치에 뛰어난 대부분은 열정이 있다고 해주지요. 하기가 요즘은 잘못된 열정으로 무장된 이른바 ‘생계형 정치인’이 적지 않아, 이들이 벌인 탐욕적 일탈행위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베버도 그저 그런 정치인이 뛰어난 정치가가 되려면 순수한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열정에 책임감이 보태져야만 한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했지요. 열정만 있다면 잘못

된 신념의 근본주의에 빠지거나, 아마추어리즘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행위의 결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성을 강조했습니다. 선한 동기가 무조건 좋고 옳은 결과를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통용되는 원리이니 훌륭한 정치가는 역시 남에게 미칠 결과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하나 더, 균형적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균형적 판단을 ‘정치가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자질로, 내적 집중력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지요. ‘바뀌 말하면 사물과 사람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균형적 판단에는 뭔가 합리성, 냉철함, 예지력 같은 요소가 포함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베버는 다시 이렇게 경고합니다. ‘거리감의 상실은 어느 정치가에게나 치명적인 죄과(罪過).’ 정치인들이 막말로 반짝 시선을 모으지 말고,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만 할 게 아니고, 선거 때 잠시 몸만 낮추는 것 말고, 이런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비단 정치뿐이겠습니까. 인간적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루나가는 것이 넓게 보면 다 ‘개인으로서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가의 역할과 자질을 꿰뚫은 베버의 통찰력은 주기적으로 투표하는 우리의 무딘 정치 감각을 날카롭게 일깨워주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회사에서나 단체에서, 사적 모임에서 다 통용될 수 있는 자질들이지요.

정치를 혐오하거나 애써 무관심해도, 그 정치가 결국 나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치가 후지다고, 정치인의 수준이 낮다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유권자의 권리이지만, 유권자의 선택과 목인, 투표로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기도 합니다. 정치 수준은 유권자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들 하지요.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민주 정치에서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러니 유권자들도 ‘소명 의식’이 있는 정치인들을 뽑기 위한 ‘소명’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20대 국회에서 더 나은 정치가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Max Weber



막스베버(1864~1920)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19세기 후반기부터 20세기 초에 활동한 독일의 저명한 사회과학자이자 사상가이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종교 등 인문·사회과학적 현상분석에 필요한 이론구축으로 현대사회학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철학이나 사회학 등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사회과학적 및 사회정책적 인식의 객관성》(1904),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1905)이 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정치란 무엇이고 정치가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있는 막스베버의 대표적인 저서이다.